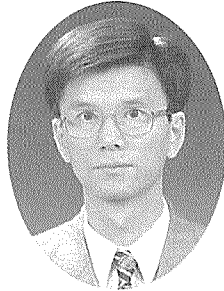


## 유가자유화 1년의 평가



강 신 민

〈 통상산업부 석유정책과 사무관 〉

국

내 유가의 전면 자유화가 시행된 지도 1년여의 세월이 지나갔다.

사실 지난해 이맘때만 하더라도 정유사나 주유소등 석유업계는 물론이고 정부 일각에서도 유가 자유화 이후의 시장상황의 불확실성에 따른 우려와 함께 새로운 시장질서의 정립에 이르기까지 필연적으로 수반될 부작용에 대한 걱정으로 유가자유화의 원활한 정착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으며 심지어는 자유화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대두되는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진통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유가 자유화의 의미를 지금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가격산정 방식을 벗어나 가격결정 주체가 정유사, 유통업체, 소비자 등으로 다원화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때 유가 자유화는 국내 석유시장이 자유방임의 혼돈상태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다원화된 세력에 의해 정부의 일방적 규제가 아닌 가격기능에 의한 새로운 시장질서가 정립된다는 것으로 국내 석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진정한 경쟁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시장상황의 불안등 유가 자유화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가격경쟁의 유도를 통한 유가 자유화의 조기 정착을 위

해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드디어 '97.1.1일부로 국내 유가가 자유화 되기에 이른 것이다.

### 유가 자유화 이후 국내유가 동향

'97.1월 유가 자유화 시행 초기에 국내 유가는 국제 원유가격 및 환율 상승과 업계의 원가 현실화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3월 이후 국제 원유가 안정과 업계의 가격경쟁 가시화로 하향안정세를 시현하였다.

비록 최근 겨울철 성수기를 맞아 환율 상승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다시 유가는 상승추세를 나타내고는 있으나, 정유사간·주유소간 경쟁지속으로 휘발유가격은 적정수준에 비해 10원 정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유

### 유가 자유화 이후 국내유가 동향

(단위 : 원/l)

	'96.12월	'97.2월	8월	11월
휘 발 유	815	848	799	836
등 유	346	396	335	375
경 유	347	383	329	374
평 균	457.66	496.56	441.61	483.68
원유가(\$/B)	21.93	22.79	17.80	19.57
환율(원/\$)	831.80	850.09	893.41	919.54

\*모니터링(월평균)가격기준임.

### 요인별 상승영향

	96.12 (A)	97.11 (B)	요인별 변동효과 (%)						합계 (B/A)
			국제가	환율	현실화	마진인상	세금인상	가격할인	
휘발유	815	836	-0.61	3.19	0.98	0.49	0.00	-1.43	2.62
등 유	346	375	-6.64	7.51	2.89	2.60	2.89	-0.79	8.46
경 유	347	374	-10.65	7.49	6.05	2.88	2.88	-0.99	7.66
평균	457.66	483.68	-5.64	5.68	3.30	1.82	1.67	-1.14	5.69

소단계의 가격차이가 최고 70원 정도 발생하고 있고, 전체 주유소의 약 40%가 정유사의 예상 소비자가격에 비해 낮게 가격을 운용하고 있는 등 가격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 평가 및 문제점

유가 자유화 이후 국내 유가는 지역별·정유사별로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으며, 급격한 가격등락 등 시장혼란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어 일단 유가 자유화가 원활하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유가 자유화 이후에도 정유사들은 종전의 유가연동제 공식을 기본틀로 활용하여 일부 비용을 현실화시킨 수준에서 유가를 결정함으로써 석유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유통단계에서도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에 맞춰 급격한 유통마진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면서도 가격·서비스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정유사가격 사전보고제는 규제적 차원이 아닌 석유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새로운 시장질서 구축에 기여하였고, '97.7월부터는 보고시한을 가격변동 전일로 단축하여 사실상 사후보고제나 다름없이 운영됨으로써 국내 석유시장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제고시키게 되었다. 또한 국내 유가 동향조사를 위한 모니터링제도 역시 원활히 정착되어 모니터링 결과가 수요처 등의 구입가격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석유류 가격표시제 정착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주유소 단계의 경쟁이 촉진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휘발유등 일부

유종의 가격경쟁이 소모적 과당경쟁으로 발전할 경우 대외개방을 앞둔 국내석유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가격의 빈번한 변동 및 지역별·소비자별 가격차 발생에 따른 소비자 혼란과 정유사가 주유소에 대해 판매가격 조정을 강요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성행하는 등 다소간의 문제점도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그간 국내 석유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완결판으로 실시된 유가 자유화는 다소간의 문제점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착단계로 들어선 것으로 보여지나, 앞으로 성공적인 유가 자유화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정부나 업계 뿐아니라 소비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혜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개입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나가면서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며, 업계도 자율적인 가격설정권 행사를 통한 자생력을 배양하고 소비자는 적극적인 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질서 형성의 한 축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모쪼록 모든 이들의 우려와 기대 속에 출발한 유가자유화는 이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는 기대를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자위하면서 앞으로 자유경쟁원리에 의한 가격의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여 국내석유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민간기업의 창의력을 제고하여 가격, 품질 등 서비스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증대와 함께 경쟁에 의한 경쟁력 배양을 도모하여 다가올 석유산업의 대외개방에 대비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